

## 노숙 - 내항매화 기질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

노숙은 오나라 손권의 참모였다. 조조가 오나라와 유비만 정복하면 천하통일을 앞두는 시점에 손권은 조조에게 항복을 해야 하는지 전쟁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노숙은 조조에게 항복할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나라를 지키자는 주전파였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유비를 찾아가 조조의 상황을 알아보고 자신의 군주인 손권에게 조조를 대항하여 싸울 것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한다. 제갈량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손권을 설득한다.



외항매화 기질이었던 손책의 죽음으로 그의 동생 손권이 오나라의 왕이 되었다. 하지만, 천하통일의 야심을 품은 조조는 손권에게 항복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다. 내항매화 기질인 손권은 소심하고 자신이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고, 신하들은 두 패로 나뉘어 서로 경론을 벌렸다. 손권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는 형이 죽을 때 한 ‘밖으로부터 우환이 생기면 주유와 의논하라’는 손책의 유언을 기억나게 해 준다. 결국 손권은 조조와 같은 외항대나무 기질인 전략가 주유를 부르게 된다. 주유는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갈량의 설득으로 조조와 싸우겠다고 마음을 돌린다. 제갈량은 조조가 동작대에서 지었다는 시에서 나오는 이교가 강동이교 중의 한 사람으로 불리는 주유의 아내를 일컫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조의 시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다. ‘이교를 동남에서 끌어와 아침저녁으로 함께 즐기리라’ 주유의 말을 듣고 손권은 조조와 싸우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의 칼을 뽑아 책상 귀퉁이를 잘랐다. 그리고 선포했다. ‘누구든지 다시는 조조에게 항복하자는 말을 꺼내지 말라. 그런 자는 이 책상과 같이 될 것이다.’ 내항매화 기질인 손권은 결심하기까지 힘들지만,

한 번 결심하면 되돌리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현실성과 꼼꼼함으로 준비하는 내향매화**

노숙은 오나라 전략가 주유와 유비의 전략가 제갈량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 완충 역할을 끊임없이 한다. 주유가 제갈량을 죽이고자 했을 때 제갈량의 형인 제갈건을 통해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건의 했고, 주유가 제갈량에게 10만개 화살을 3일 내로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배와 물품을 준비해서 제갈량을 도와주었다.

### **할 말 다 못하고 사는 내향매화**

노숙은 유비가 적벽대전의 전리품인 형주를 차지한 것 때문에 금창이 터져 쓰러진 주유를 대신하여 유비를 찾아가게 된다. 내향매화 기질이 참고 참다 따질 요량으로 큼 맘 먹고 제갈량에게 따지려 갔다. 하지만, 제갈량이 노숙이 입을 막기 위해 강하성에 있는 유기공자를 형주에 불러들여 모시는 척 했다. 형주는 유표의 큰 아들인 유기공자가 왕으로 있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것이다. 내향매화 기질은 그런 전통적 정당성에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따지려고 왔던 노숙은 아무런 말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된다.

후에 유기공자가 죽자 노숙은 다시 형주의 유비를 찾아왔다. 유기공자가 죽었으므로 이제 형주를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제갈량은 노숙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비는 한실의 왕족이고 유표와 유비는 형제에 해당하지만, 오나라 손권은 벼슬아치의 자식으로 강동 81주를 훔친 것도 과하다고 했다. 노숙은 또다시 내향대나무 기질의 제갈량의 달변에 할 말을 잊어버렸다. 제갈량은 지도를 보여주면서 형주41주를 함락하면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노숙은 그 약속을 믿고 오나라로 돌아간다.

### **온화한 리더를 좋아하는 내향매화**

노숙은 주유가 죽자 방통을 손권에게 추천한다. 하지만, 손권 앞에선 방통의 태도는 방자하고 거만했다. 손권은 방통의 예의 없는 태도에 분노했고, 방통을 내어 쫓았다. 방통은 실망하여 조조에게 가겠다고 한다. 그러자 노숙은 차라리 형주의 유비에게 가라고 한다.

### **예의를 중시하는 내향매화**

손권은 유비가 서촉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입성한다는 말을 듣고 군대가 대거 빠진 형주를 탈환하려 가려한다. 하지만, 손권의 어머니 오부인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형주에 있는 손권의 여동생이 있는 곳을 치겠다는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손권은 어머니의 말쑼을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